

노인들의 용서 경험 시기에 따른 인지적 변화 요인의 특성

위 경 선 ·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요약) 노인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과거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그 치유 방법 중 하나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노년기 용서과정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변화의 요인은 ①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②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③자신과 타인의 건강악화, ④자연재해로 인한 죽음 관찰, ⑤종교를 통한 삶의 회고와 치유, ⑥교육 등의 간접적 개입의 6가지이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용서를 경험했던 시기/연령에 따라서 인지적 변화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과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상처를 심하게 받았다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준 60-83세 사이의 남성 80명과 여성 85명이었다. 노인들은 용서 시 앞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5점 척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용서시기에 따라서 용서에 영향을 미친 인지적 변화 요인의 차이가 있었다. 젊은 시절에 용서했을 때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고령에서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Key words: 노인 건강, 용서경험, 용서과정, 상처치유]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완성된 것이며, 본고의 일부는 2012년 10월 19일 개최된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ging”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윤가현 교수 앞으로 하길 바라며, 교신저자의 e-mail 주소는 ghyoun@chonnam.ac.kr이다.

서론

대다수 노인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영위하기 위하여 과거에 경험했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그 치유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는 상처를 준 사람(가해자)에 대한 용서이다. 용서란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적대감을 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동정이나 자비, 사랑을 베풀고자 노력하는 복합적인 심리과정이며,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정서·행동·인지를 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행동·인지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nright, 2001). 많은 사람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 하지만, 정서적 상처가 깊을 경우 강한 분노와 복수심을 비롯해 절망감과 수치심 때문에 용서가 쉽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운산, 2008). 실제로 과거에 정서적 상처를 받은 이후 상처를 주었던 대상을 용서하기까지 50년의 시간이 소요된 노인들도 있으며, 용서하기가 힘들어 하지 못하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위경선 · 윤가현, 2011a). 그렇지만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해방감을 느꼈으며, 자신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해졌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으며, 용기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Kaufman, 1984).

우리나라 성인들이 그동안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기억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였으며, 그러한 상처로부터 받은 영향은 정서적 (분노, 배신감), 행동적 (일상생활 장애, 본인의 회피행동), 그리고 인지적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생각변화) 순으로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경우, 용서는 자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문제해결방법이자 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였다 (오영희, 2006). 이처럼 용서는 한 개인이 부당하게 입은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어서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준다 (박종효, 2003; Cotroneo, 1982; Enright & Fitzgibbons, 2000; Hope, 1987; Smedes, 1984).

이러한 용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장기

노인들의 용서 경험 시기와 인지적 변화 요인

간 지속되는 일련의 과정(단계)을 거쳐 성취된다. 용서의 과정은 과거의 상처 경험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이며, 용서의 목적은 피해자 스스로가 내면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손운산, 2008). 즉 용서 과정에서의 인지적 변화는 용서를 이해하거나 용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필자들은 최근 과거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분노와 고통을 겪다가 용서를 경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가해자를 용서한 과정을 탐색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노년기 용서과정은 ① 신뢰감 파괴 및 자존감 손상 (Destruction of trust, Damaged self-esteem) → ② 분노 표출과 되새김 (Anger, Rumination) → ③ 인지적 변화 (Cognitive change) → ④ 용서의 마음 싹트기 (Blossoming forgiveness) → ⑤ 용서의 결정과 행동 (Decision/Act forgiveness)의 5단계로 구성된다 (위경선·윤가현, 2011b, 2011c).

여기에서 용서 과정의 핵심은 인지적 변화인데, 그 변화는 연령증가와 함께 생애 경험이 풍부해지고 또 상처를 치유해주는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노년기 용서과정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변화의 요인, 즉 인지적 변화를 가져다준 상처 치유의 경험은 ①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②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③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악화, ④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죽음의 직·간접적 관찰, ⑤ 종교를 통한 삶의 회고와 치유, ⑥ 교육 등의 간접적 개입의 6가지였으며, 이 요인들 중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용서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용서가 가능했던 경우들이 대다수였다 (위경선·윤가현, 2011c).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의 양이 늘어나며, 용서의 가능성이나 의지 등도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용서의 연령 효과를 검증한 Lawler-Row와 Piferi(2006)에 의하면, 용서의 의지나 욕구는 중년기보다 노년기에 와서 훨씬 더 강한 편이다. 연령의 효과를 미래시간 조망(future time perspective) 및 사회근접성(social proximity)의 역할에 따라 검증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면, 중년기보다도 노년기에서 용서를 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던 부분도 사실이지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자신이 건강을 유지할 때보다 심각한 질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조건

그리고 가해자가 건강을 유지할 때보다도 심각한 질환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조건에서 그 가해자를 더 쉽게 용서했던 것이다. 또 노년기에는 가해자가 단순히 알고지내는 사람이든 절친한 사이이든 용서의 결정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중년기에는 가해자가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일 때보다 절친한 사이이었을 때 더 쉽게 용서를 하는 편이었다 (Mathias, 2008).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가해자의 사과여부가 용서를 촉진시켰으며, 가해행위의 고의성 및 결과의 지속 여부도 용서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rby & Schlenker, 1982; Girard & Mullet, 1997). 또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중요할수록, 사람들은 보복보다도 용서를 택하는 결정을 내렸다 (Rusbult, Verette, Whitney, Slovik, & Lipkus, 1991).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해자가 사과를 할 경우, 친밀한 관계일 경우 용서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아, 2008).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종교를 들 수 있는데, 종교와 용서 경향성이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들도 있었지만 (Edwards 등, 2002; Mullet 등, 2003; Tsang, McCullough, & Hoty, 2005; Tung, 2009),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Subkoviak 등, 1995).

전술한 바처럼 노인들은 원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과거의 상처 경험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상처 경험의 가치를 폄하하는 인지적인 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용서를 하게 된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경험의 양이 누적되듯이 용서의 경향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지금까지 용서의 경향성을 실험적으로 밝히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수많은 연구자들이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지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용서를 했던 시점에 따라서 살펴보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인을 용서했던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용서를 했던 시기(즉 당시의 연령)에 따라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즉 노인들이 용서를 경험했던 시기(30대, 40대, 50대, 및 60대 이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앞에서 제시된 노년기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인지적 변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해보았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들은 과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상처를 심하게 받았다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준 경험이 있었던 60-83세 사이의 남성 80명(연령: $M=72.6$ 세, $SD=6.8$)과 여성 85명(연령: $M=71.4$ 세, $SD=6.3$)이었다. 그들은 모두 아직까지 상처에 관련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대인관계에서 기분이 나빠져서 마음의 형평이 깨어지고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깊은 상처를 받고도 본인 스스로가 가해자를 용서한 경험이 있다고 느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본 연구 참여에 구두로 동의한 자들이었다.

용서 시점의 연령에 따라 용서에 중요한 인지적 변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인지적 변화 요인 질문지를 주고서 그 질문지에 적힌 각 인지적 변화 요인이 가해자를 용서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양적으로 답하도록 했다. 연구대상자에게 제시될 인지적 변화 요인 질문지는 위경선·윤가현(2011a)의 연구에서 도출한 여섯 가지 인지적 변화 요인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 여섯 가지 요인은 서론의 모두와 말미 그리고 <표 1>에 적혀 있으며, 질문 내용은 상처를 주었던 대상을 용서했던 시기가 언제이며, 그리고 그 대상의 용서에 미친 영향을 여섯 가지 요인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 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설명한 후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대상에게 질문지를 읽어주거나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일대일 면접으로 수집되었으며, 총 165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및 연구대상자가 용서를 경

험했던 시기에 따라서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화 요인들의 중요도를 순위로 정리한 것이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의 내용을 먼저 연령에 따라서 기술한 후 요인에 따른 기술을 했다.

연령

30대 시절의 용서. 연구대상자들이 용서를 했던 시절을 30대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인은 “타인과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및 “종교”이었다. 그 중 남성은 종교보다 전자를 더 중요하게, 여성은 전자보다 종교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또 “본인이나 타인의 건강악화” 요인이 남녀 모두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요인이 용서를 할 때 미치는 영향이 남녀 모두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사회적인 진출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40대 시절의 용서. 용서를 했던 시절을 40대라고 응답했던 경우도 30대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타인과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및 “종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그 중요성의 순위도 30대와 같았다. 건강 요인이 남녀 모두 세 번째로 부각된 것도 30대와 같았다. 그러나 30대와 특이하게 다른 점은 남녀 모두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요인의 중요성에서의 변화였는데, 그 순위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점수의 상승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50대 시절의 용서. 용서를 했던 시절을 50대라고 응답했던 경우도 종교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남녀 모두 1순위에 해당되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종교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점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았다. 또 남녀 모두 “타인과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요인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미친 영향은 30대나 50대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다.

60대 시절의 용서. 용서를 했던 시절을 60대 이후라고 응답했던 경우 남녀 모두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용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는 “종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과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요인이 나타났다.

노인들의 용서 경험 시기와 인지적 변화 요인

<표 1> 성별 및 용서를 경험한 시기에 따른
인지적 변화 요인의 영향력

용서 시기	요인	남성		여성	
		<i>M(SD)</i>	영향력 순위	<i>M(SD)</i>	영향력 순위
30대	1	0.50 (1.71)	6	0.33 (0.58)	6
	2	2.54 (1.37)	1	1.95 (1.46)	2
	3	1.58 (0.60)	3	1.86 (1.08)	3
	4	0.93 (1.33)	4	0.54 (0.90)	5
	5	2.07 (1.10)	2	2.28 (1.31)	1
	6	0.93 (1.04)	4	1.03 (1.21)	4
40대	1	1.67 (1.21)	5	1.78 (1.30)	4
	2	2.67 (1.18)	1	2.30 (1.17)	2
	3	2.01 (1.02)	3	1.87 (1.02)	3
	4	0.57 (1.12)	6	0.63 (1.03)	6
	5	2.56 (1.31)	2	3.04 (1.14)	1
	6	1.70 (1.46)	4	1.43 (1.04)	5
50대	1	1.70 (1.45)	4	2.11 (1.48)	5
	2	2.35 (0.82)	2	2.65 (1.17)	2
	3	1.92 (0.76)	3	2.30 (0.87)	3
	4	0.62 (0.92)	6	1.00 (1.39)	6
	5	2.73 (1.10)	1	3.59 (0.97)	1
	6	1.48 (1.33)	5	2.07 (1.54)	4
60대	1	2.88 (1.05)	1	3.20 (1.20)	1
	2	2.39 (1.04)	3	2.68 (1.45)	3
	3	2.12 (1.02)	4	2.52 (1.10)	4
	4	1.04 (0.93)	6	1.09 (1.44)	6
	5	2.65 (1.41)	2	3.10 (1.37)	2
	6	1.91 (1.35)	5	2.00 (1.54)	5

주. 요인1: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요인2: 타인과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요인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악화
 요인4: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죽음의 직·간접적 관찰
 요인5: 종교를 통한 삶의 회고 및 치유
 요인6: 교육 등의 간접적 개입

인지적 변화 요인별 특성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연구대상자들이 용서를 했던 시기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중요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용서를 했던 시기가 60대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남녀 모두 이 요인이 가장 중요했었던 반면, 30대에서는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 용서를 했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40대나 50대에 용서를 할 시절에도 다른 요인에 비해서 상대적 중요성이 낮은 편이었다.

타인과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이 요인은 남녀 모두 30대나 40대, 심지어 50대까지 용서를 했을 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60대 이상에서는 그 영향력이 감소했다. 그와 같은 연령에 따른 차이는 아마도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겪은 갈등 상황을 자신만의 경험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타인들도 자신과 같은 갈등을 겪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에 기인했을 것이다.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악화. 건강이 약해졌을 때 자신의 삶을 비롯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인하고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요인은 용서를 결정할 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아직까지 본인이 건강한 편이며, 또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도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반인의 죽음 관찰. 연구대상자들이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요인이 용서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용서를 했던 시절이 30대였을 때에는 여섯 가지 요인 중에서 4 또는 5순위, 40대 이후에 용서했을 때에는 6순위를 차지했다. 즉 이 요인은 용서시기에 상관없이 용서과정에서 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통한 삶의 회고 및 치유. 연구대상자들이 용서를 했을 때 그 계기가 종교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응답은 용서를 했던 시기와 상관없이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즉, 종교 요

노인들의 용서 경험 시기와 인지적 변화 요인

인은 여성의 30대와 40대 및 50대 그리고 남성의 50대의 용서시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여성의 60대, 남성의 30대와 40대 및 60대 용서시기에 두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교육 등의 간접적 개입. 이 요인은 용서를 했던 시기와 상관없이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중요성이 높지 않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이 경험했던 상처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 등의 개입을 요청해본 적이 없는 것과 관계가 클 듯하다.

논의

본 연구는 노인들이 상처를 겪고 나서 그 상처에 관련된 가해자를 용서했던 시기(연령)에 따라서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화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자에게 각각의 인지적 변화 요인이 가해자를 용서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고서, 그 정도를 양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용서를 했던 시기(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용서에 영향을 미친 인지적 변화 요인에 따라서 정리했다.

그 주된 내용 및 함축된 의미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노인들의 용서시기가 60대 이상이었을 경우 남녀 모두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종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의 순서로 용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노인들의 용서시기가 50대이었을 경우 남녀 모두 “종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본인과 타인의 건강 악화” 순서로 용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남성 노인의 용서시기가 30대나 40대이었을 경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종교,” “본인과 타인의 건강 악화” 순서로 그리고 여성 노인의 용서시기가 30대나 40대이었을 경우 “종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 “본인과 타인의 건강 악화” 순서로 용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본 연구의 결과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60대 이후에 용서를 하였을 때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었다. 이는 성숙한 노화를 위

해 필요한 요인들을 서구와 우리나라 노인들을 상대로 비교한 연구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서구의 노인들의 경우 성숙한 노화를 위해 자율성이나 생산성, 적극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중요했던 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자녀의 성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정영숙, 2011). 또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와의 친밀도가 클수록 자존감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성인자녀가 그들에게 노부모의 자존감 유지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었다 (유양경 등, 2004). 즉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의 성공은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에 도달하여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되면 타인하고의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를 해소시키는 등 화해나 용서를 쉽게 시도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들의 자녀가 취업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사회경제적 지위의 안정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년기처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편 용서를 했던 시기와 상관없이 종교를 통한 삶의 회고 및 치유 요인이 용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영향력은 용서를 했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종교성(religiosity)이 용서하려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또 그 영향력이 특히 노인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Mullet 등, 2003). 역시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종교와 용서, 적개심, 건강의 관계에 대한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 종교성이 더 많은 용서를 하도록 하며, 더 많은 용서는 적개심을 감소시켜주고, 적개심의 감소는 주관적으로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Lutjen, Silton, & Flannelly, 2012). 또 종교가 노인환자들의 영적인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김연숙 등, 2007; 이미경, 2002, 이주연, 2011), 본 연구에서도 종교가 안녕의 차원에서 용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녀 모두 노인들이 용서를 경험했던 연령이 30대로부터 50대 사이에서는 “타인과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들의 용서 경험 시기와 인지적 변화 요인

상처를 준 사건과 관련된 요인(예; 가해자의 사과, 사건 이후 경과된 기간, 사건의 책임 소재나 고의성 여부, 비난받을 만한 사건 여부, 지각된 심각성, 즉각적인 결과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요인(예; 사건 이전에 가해자와의 친밀성 정도, 관계에 대한 헌신, 사건 이전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 두 사람 관계의 질 등), 개인적 요인(예; 피해자의 성격이나 기질, 연령, 종교, 사건에 대한 반추 정도, 분노 형태 등) 등에 관한 언급을 했을 뿐이며 (Darby, & Schlenker, 1982; McCullough 등, 1998; Worthington & Wade, 1999), 타인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한 이해의 폭이나 수준이 변했는지 또는 타인의 경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익히면서 자신의 상처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졌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노인들은 상처를 경험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힘든 일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음을 직접 관찰하거나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또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가해자와 유사한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상처를 일반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직·간접적 관찰을 통해 가해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인지적 변화가 나타나 용서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용서를 했던 시기가 60대 이상이었을 경우에도 이 요인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과 “종교”에 이어서 용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본인이나 타인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것이 용서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 정도는 용서를 했던 시기에 상관없이 순위 상으로는 세 번째나 네 번째에 해당되었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가해자를 더 쉽게 용서하게 된다는 Mathias(2008)의 연구 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이 요인이 용서에 영향에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건강상태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결정할 때 평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노인들이 용서를 경험한 시기에 따라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화요인이 차이가 있음을 논의했다. 그들의 용서 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특히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종교” 및 “타인

과 상호작용이나 직·간접적 관찰”이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그 중에서 하나는 실제 나이가 본 연구의 대상자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령대에서 용서를 했을 때 고려하는 요인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용서를 경험한 30대나 40대, 50대 성인들이 최근 용서를 경험했을 때를 살펴 보면서 용서를 경험한 연령에 따라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화 요인의 차이를 논해야 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연숙 · 권영은 · 성기순 · 곽혜련 (2007). 입원노인의 삶의 질, 죽음, 불안,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9, 143-153.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301-322.
- 손운산 (2008).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 467-486.
- 위경선 · 윤가현 (2011). 신뢰감 파괴로 인한 상처경험에 대한 노년세대 의 인지적 변화. 2011년 5월 개최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 373). (a)
- 위경선 · 윤가현 (2011). 노년기 과거 상처 경험의 용서과정 모델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2011년 5월 개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 261). (b)
- 위경선 · 윤가현 (2011). 과거 상처 경험에 대한 노년기 용서과정. *한국노년학연구*, 20, 63-83. (c)
- 유양경 · 고성희 · 김귀분 · 정승희 (2004).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6, 102-110.
- 이미경 (2002).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영적안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 (2011). *일 종합병원 노인환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 (2011). *Moving toward matured aging: Search for aging well in Korean elders*. 2011년 8월 개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p. 26-44).
- 조수아 (2008). *용서신념이 용서와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pp. 241-244). New York: Brunner/Maxel.
- Darby, B., & Schlenker, B. (1982). Children's reactions to ap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42-753.
- Edwards, L., Lapp-Rincker, G., Magyar-Moe, J., Rehfeldt, J., Ryder, J., Brown, J., & Lopez, S. (2002).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faith and forgiveness: Faith in the absence of data? *Pastoral Psychology*, 50, 147-152.
- Enright, R. (2001). *Forgiveness is a choice: A step-by-step process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 Fitzgibbons, R.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irard, M., & Mullet, E. (1997). Propensity to forgive in adolescents, young adults, older adults, and elderly peop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 209-220.
- Hope, D. (1987). The healing paradox of forgiveness. *Psychotherapy*, 24, 240-244.
- Kaufman, M. (1984). The courage to forgive.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and Related Sciences*, 21 (3), 177-187.
- Lawler-Row, K., & Piferi, R. (2006). The forgiving personality: Describing a life well liv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009-1020.
- Lutjen, L., Sifton, N., & Flannelly, K. (2012). Religion, forgiveness,

- hostility and health: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1, 468-478.
- McCullough, M., Rachal, K., Sandage, S., Worthington, E., Wade-Brown, S., & Hight, T.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athias, A. (2008). Age differences in forgiveness: The role of future time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1137-1147.
- Mullet, E., Barros, J., Veronica Usai, L., Neto, F., & Shafighi, S. (2003). Religious involvement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71, 1-19.
- Rusbult, C., Verette, J., Whitney, G., Slovik, L., & Lipkus, I. (1991). Accommodation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Theory and preliminary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3-78.
- Smedes, L. (1984). *Forgive and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California: Harper and Row.
- Tsang, J., McCullough, M., & Hoty, W. (2005). Psychometric and rationalization accounts of the religion-forgiveness discrepancy. *Journal of Social Issues*, 61, 785-805.
- Tung, L. (2009). *Choosing to forgive: An experiment study of factors that affect forgiv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Subkoviak, M., Enright, R., Wu, C., Gassin, E., Freedman, S., & Olson, L.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45.
- Worthington, E., & Wade, N. (1999). The psychology of unforgiveness and forgivenes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18, 385-418.

**Characteristics of the Cognitive Change Factors
according to the Time
when Older People Had Forgiven the Past Hurts**

Kyeong-Sun Wee ·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500-757, Korea

In order to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for their remaining years, older people want to be healed up the past hurts they had ever experienced. One way to be healed up should be to forgive the persons who gave the hurts to the older people. Forgiving process is very much related to cognitive change, and factors of the cognitive changes in the forgiving process in old age are ① children's ascent in their SES level, ② interaction with the others, ③ deterioration in health, ④ observation of death owing to a natural disaster, ⑤ retrospection and healing of life through a religion, and ⑥ indirect intervention such as educational programs. This study was to explore if there would be any differences in the cognitive change factors according to the time or age when older people had forgiven the persons. Participants were 80 men and 85 women who were aged from 60 to 83 years, and they were all who had ever experienced the serious emotional hurts in the past as well as had ever forgiven the persons who gave them the hurts. None of them have ever had any professional help on their hurts. They were asked when they had forgiven the past hurts, and asked to assess how much each cognitive change factor affected for their forgiveness acts on a 5-point scale, 0 (not at all) to 4 (very much). Data were collected thru a one-to-one interview.

Data concerning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over the forgiveness were tabulated according to gender as well as the time when older people had forgiven the hurts.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cognitive change factors according to the time when older people had forgiven. For instance, *interaction with the other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hen the time of older people's having forgiven was in their 30s or 40s, whereas *children's ascent in their SES level* was in their 60s.

(논문접수일: 2012년 10월 1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2년 11월 15일)

(논문게재승인일: 2011년 11월 26일)